

1300년 역사의 양양 낙산사(주지 설옹)가 대중들이 수행과 휴양을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사찰로 거듭난다. 낙산사는 40실 규모의 낙산유스호스텔을 3월 1일 인수해 5월경 불자들의 신행공간 상락원으로 개원하는 한편 30만명 경내의 모든 빈터를 꽃밭으로 꾸미고, 자전거 일주도로도 개설할 계획이다.

경내 빈터에 꽃밭·자전거 일주로 개설  
40실 규모 콘도형 펜션 건립도 추진



◊낙산사가 3월 인수하여 불자수행 및 요양기관으로 활용할 낙산유스호스텔 전경.

기도 등 스님들과 똑같이 하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PC방 등 부대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이외에도 낙산사는 흥련암에 요사채를 신축하여 기도객들이 편안히 쉴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폐교를 인수하여 현재 운영중인 노인요양원에 치매노인요양원과 불교장례식장, 남팔당까지 갖출 방침이다.

낙산사 주지 설옹스님은 "가족들과 함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절에 와서 하루 묵기가 쉽지 않다"며 "사찰에 리조트 개념을 도입한 낙산사의 변모는 불교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양=김원우기자

## 낙산사 수행·휴양 사찰 겸한다

### 낙산 유스호스텔 인수... '상락원' 5월 개원

이와는 별도로 불자가족과 일반인을 위한 40실 규모의 콘도형 펜션(편의시설을 갖추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운영되는 숙박시설)도 건립키로 했다. 상락원은 불자들이 15일~30일 장기간 사찰에 머물며 수행하고 요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낙산사는 불자들을 위해 신홍사 건봉사 등 3사 순례 및 고창관광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설악해수욕장 부근에 건립하는 펜션은 주5일 근무제를 앞두고 불자와 일반인 가족을 위한 휴양공간으로 준비하는

리조트형 사찰모델. 펜션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4,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1박2일 사찰 체험 프로그램인 '산사의 하루'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들이 산사에서 새벽에 불부터 참선 공양(식사) 올력(경내 청소)



◊양주 대원정사 신도들이 12월31일 약 1km 거리를 1보1배 정진하고 있다.

### 대원정사, 새해맞이 1보1배 정진으로

"하심하며 새해를 설게하자."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대명산 정상에 위치한 대원정사(주지 해련 스님) 신도들은 제미년 새해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맞았다. 지난 해 12월 31일 밤 11시, 산 아래 마을 입구에 모인 30여 명의 신도들은 법당까지 약 1km 거리를 1보1배 정진을 하며 올랐다. 이어 법당에서 새벽 5시까지 정진했다.

3년 전 처음 1보1배를 신도들에게 제안했던 주지 해련 스님은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감감한 이듬 속에서 스스로를 한 번 되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자신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중생을 위하는 보다 큰 원력을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영암 도갑사에

#### 도선국사 연구소

도선국사연구소가 전남 영암 도갑사(주지 법각)에 문을 열었다. 도선국사연구소는 첫 사업으로 도선국

사 관련 문헌 자료와 전남북지역의 설화 등을 정리한 <도선국사 문헌자료집 1>을 최근 발간한 데 이어 출생과 수락기 문제, 고려 왕실과의 관계,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알려지게 된 이유 등 그의 행적과 사상을 밝히기 위한 학술대회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 10일은 '부처님 되신날'

### 전국 사찰서 철야용맹정진 기념법회

10일은 음력 12월 8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 되신 날(성도절)'. 이날은 불교의 4대명절 중의 하나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철야 용맹정진과 기념법회 등으로 성도절의 의미를 되새긴다. 부산 여여선원은 3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전10시에 기도하며 6일부터 9일까지는 매일 저녁 8시에 3천배 기도법회를 갖는다. 통도사 부산포교원도 4일부터 9일까지 법회를 열어 매일 기도 및 참선 자비도량잡법을 병행하고 9일 오후 10시부터 철야 기도정진법회를 병행한

다. 서울 조계사와 강남 봉은사, 도선사, 정토회도 성도재일 전날부터 철야 용맹정진 법회를 연다. 대구 동화사와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10일 오후 2시 대구체육관에서 2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도절 연합대법회를 병행한다. 대전광역시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정림회도 10일 오후 6시 대전시민회관에서 '성도절 대법회'를 병행한다. 청주청원영산회도 10일 오후 2시 청주시민회관에서 '성도절 대법회'를 병행한다. 김재경·김주길 기자

## 우곡선원 심성개발 교육원 부산교육청 연수기관 선정

우곡선원(원장 장명화) 심성개발교육원이 최근 부산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곡선원(www.wookook.org)은 이번 교육기관 선정에 계기로 본격적인 교원 및 교육전문직 연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곡선원은 우선 7월부터 9월까지 부산 교육원에서 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교사, 교감, 교장) 및 교육전문직 40명을 대상으로 특수분야(심성개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 이번 교원 연수는 발우공양, 선기공수련, 명상호흡, 의식작용의 허구성과 현대심리학, 심성 개발, 동백선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051)740-6288-9 김재경 기자

## 우리결 우리 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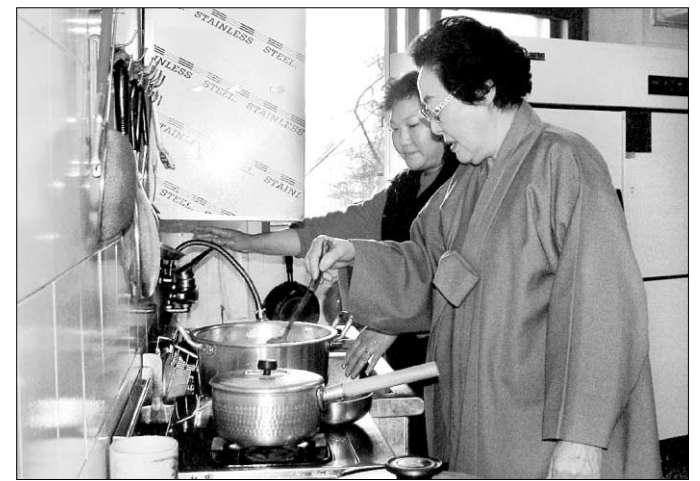
## 40년을 광명사와 동고동락

### "걸어다니는 寺蹟記" 김보현행 신도회장

"모르는 것 빼곤 다 안다고 할 수 있죠."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무악재 고개에 자리잡은 광명사(주지 자원 스님) 신도들은 신도회장인 김보현행 보살(75)을 '걸어 다니는 사적기(寺蹟記)'라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다. 광명사의 첫걸음부터 현재까지, 온갖 질곡을 함께 겪어왔기 때문이다. 보현행 보살이 광명사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40여 년 전, 남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들·딸 남매를 두고 살던 보현행 보살이 사고로 아들을 잃고 찾아온 곳이 바로 광명사였다. 당시는 현재 주지인 자원 스님이 은사하신 경상 스님을 모시고 남산에 포교당을 만들려고 할 때였다. 시름에 잠겨 지내던 보현행 보살은 "금생에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것은 다 지어놓은 업연이 전해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경상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일생을 부처님을 위해 살겠다"는 서원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산에 절을 세우려는 서원은 도시 계획에 밀려 3개월 만에 접을 수밖에 없었다. 1970년 지금 자리에서 토굴로 시작한 지 3년 만에 조그마한 법당을 짓고 남산 시절부터 봉안했던 부처님을 모실 수 있었다. 하지만 1988년 부처님오신날 법회를 보던 중 법당에 불이 났다. 신도들은 물론 주지 스님까지 화상이 심해 수술을 받을 정도였다. 주지 자원 스님은 "당시만 해도 절을 복구할 생각도 못 할 때였다. 그런데 보현행 보살을 비롯한 신도들은 떠나지 않고 절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자기 일처럼 나섰다. 오늘의 광명사는 보현행 보살 같은 불자들이 일군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10여 년 넘게 신도회장을 맡아 오고 있는 김보현행 보살은 여든 가까운 요즘도 양로원이나 고아원, 군 법당 등 안 가는 곳이 없다. 절에 법화라도 있는 날이면 하다못해 청소나 설거지 같은 허드렛일이라도 빠지지 않고 거든다. 요즘 광명사는 불사가 한창이다. 새로 5존불을 모시고 대각3천불 조성 불사도 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에 응변으로 전하기 위한 설법대학이 개원 막바지고, 양로원 건립 계획도 품고 있다. 김보현행 보살은 "설법대학이 개원하면 첫 번째 학생이 되겠다"는 서원을 밝혔다. 권형진 기자

### 화재로 절 소실 이후 "다시짓자" 헌신 "설법대학 개교하면 첫번째 학생 될 것"



◊첫 출발부터 40여 년을 함께 해 온 광명사에 김보현행 보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사진은 공양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 추천의말 자원스님 광명사 주지

광명사는 그동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도수가 1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절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돌봐온 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40여 년 동안 광명사와 인연을 맺고 있는 김보현

행 보살은 절이 가장 어려울 때 신도회장을 맡아 10년 넘게 신도회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보현행 보살 자신도 결코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만 공양 준비부터 불사 활동까지 앞장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명사가 여러 큰 서원을 세우고 이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보현행 보살 같은 신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